

은 수행가공을 몸에 익혀 힘을 얻는다 면, 이 땅의 불자로 태어난 인연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불법의 요체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오늘날 한국 불교의 풍토는 지나치게 선 우위여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부활한 믿음의 부재도 선 우위의 풍토가 빚어낸 폐단의 하나로 보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종의 가르침이나 그 전통을 왜곡되게 또는 부실하게 전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선의 정신은 배아픈 자기통찰과 혁명적 현실변혁의 힘으로 수행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분별성의 타파에 관심이 되는 중요한 수행 전통입니다. 이러한 간화선 문화는 한국불교의 저력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원효, 원측 등에 의해 구축된 원효교학시대를 기반으로 구산선문의 흥기를 구가하며 선교의 고등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선의 정신을 명징하게 계승시키고 교학을 실행하고 정직하게 학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교단내 승가 교육과 재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한편 선의 정신이 왜곡되거나 경박해진 데에는 불교만이 아닌 사회적

하고 사람함에 있어 가장 인연이 깊은 생류로 보살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보살은 발보리심한 고등한 생류이지만 만물을 자기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하심(下心)의 천재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한 우주적 생명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환경이란 말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미묘한 개념입니다. 환경이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 외의 경계를 지칭하는 대타적 말로 연기동체관에서 보면 소극적 표현입니다. 지구를 분별의 자아로 보면 태양계가, 태양계를 독립된 자아로 보면 은하계가 환경이겠지요. 그러나 무아의 연기동체로 파악하면 환경이란 없습니다. 단지 '한 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자비는 필연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대형불사의 폐단은 앞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우공양이나 스님들의 의식주 전통에서 살아있는 자연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생활 방식은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은 주로 채식을 하고 자연섬유로 옷을 지어 입으며, 동물의 털로 이불을 만들지 않으며, 고에너지가 필요한 가구나 일용품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을 승가는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재가불자들도 불가의 전통들을 사회화할 선도가 되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끔씩 대학로를 산책하며 젊은이들의 모습도 눈여겨 보시고 비둘기들에게 먹이도 주신다. 이제 지만 큰스님은 대학로의 큰스님이시다.

러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 구조적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가와 승가교육이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하겠지요. 사회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불교 교육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NGO시대에 있어 불교는 NGO위의 NIGO로서 시민사회운동의 본질적 이념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나 승가 모두 자기 혁신이 요구됩니다. 정보화와 시민사회시대의 대응 방안은 교계언론이나 사부대중이 지속적으로도 진지한 담론을 통해 도출해야 할 신중한 과제라고 봅니다.

- 큰스님의 저술은 이미 한국사회의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승 비문 연구라든가 한국불교 소외경진 연구, 율장 비교 연구 등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산화보와 사진 작업 외에도 계획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한말씀 일러 주시고 그 일에 불자들이 동참할 방법에 대해서도 귀뜸 좀 해 주십시오.

▲작년 1월에 출간된 1, 2권에 이어 얼마 안 있어 <불교대사람> 3권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1차고승비문 교

호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묘운스님 ㉔

"고향을 떠난 지 서른 해 돌아와 보니/ 사람은 가고 없고 마을은 황폐해졌다/ 청산은 맑이 없고 봄날은 저물었는데/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우는 소리(三十年來遺故鄉 人亡宅敗又村荒 青山不語春春暮 杜宇一聲徹曉)"

봄이 오고 있다. 양지빌에 앉으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지는 때이다. 벌써 고향을 떠나 스님이 된지도 어언 서른 해를 훌쩍 넘어서었다.

고독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가.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고독함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봄이 오는 산사는 수행자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한다. 위의 시는 저 유명한 서산 청허선사가 지은 것이다. 선사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아마 내 나이 정도였던가 보다. 왜냐하면 청허선사는 출가한 나이가 나와 비슷하고 시에 나타나고 있는 '三十年來遺故鄉'에서 볼 수 있듯이 출가한지 삼십년 정도의 나이에 지은 것이고, 나와서 출가한 지 삼십년을 수년전에 넘어섰기 때문이다. 선사는 생전에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전란을 겪었지만 이 시를 지을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왜 선사가 고향을 찾았을 때 마을이 황폐해 있었을까? 못된 탐관오리 탓일 수도 있고...

그리고 2~3년 지나서였다. 짧은 스님 하나가 찾아왔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신은 출가한지 일년정도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전에 지리산에서 만난 보살을 기억하느냐고 했다. 기억한다고 했더니 자신은 그 보살의 동생으로 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누님이, 스님이 되려면 지철스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여러 곳에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찾아가면 스님이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출가했고 지금은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같은 고향이고 또 그가 중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지내기도 했다.

돌보는 이 없는 병든 처사와 어질고 인정많은 비구니스님

나역시 가끔 고향을 찾아가면 이 시에서 느끼는 그런 감회를 갖게 된다. 마을은 황폐해졌고 어린시절의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만날 수가 없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친구가 어찌 고향의 친구뿐이겠는가. 삼십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보니 주변의 아까운 도반이 하나 둘씩 가고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럴 가운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법명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도반도 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비구니 묘운스님이다. 나와는 인연이 참으로 깊어 있었지만 법명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도반도 있다.

어느해 여름 가까운 도반 종태스님과 지리산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회중(僧衆)에 결제 하러 가는 것을 어찌어찌 하다가 놓친 것이다. 어느 날 마한에서 상연대라고 하는 암자를 찾아 올라가다가 그만 소나비를 만났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문수암인가 하는 비구니스님의 처소를 찾아들었다. 한여름인데도 우리 둘은 숨누더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곳이 비를 맞지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암자에는 마침 스님들이 없고 젊은 보살이 한명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 보살은 본래 비구니였는데 환속을 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보살의 고향이 내 고향 마을 하고 바로 이웃하고 있었다. 막연히 고향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반가와 하고 그랬다. 그 보살은 암자에 잠시 다녀리 왔다고 했다. 주로 수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보살은 비록 환속은 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으로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했다. 아니 승려생활때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한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간히 그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나는 운수잡자이고 그는 학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경북 울진 포곡당 객실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날 객실에는 그의 나뭇이 없었다. 우리는 밤이 늦도록 얘기했다. "우리 누님은 정말 보기드문 도인이고 대승보살입니다"하며 그가 전해준 그의 누님의 삶 내력은 정말 기구했다. 그의 누님이 처음 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었다고 한다. 집안이 가

난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자 경소에 부모님이 다니던 절의 스님을 찾아가서 그만 절에서 살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고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누님은 타고난 천성이 어질고 인정이 많았다. 큰절 옆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살았는데, 큰 절에는 일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처사가 있었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하며 살았다. 어려서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물정을 아는 것이 없었다. 또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글도 몰랐다. 나이가 들었지만 장가도 못갔다. 그냥 그렇게 일평생 절에서 일만 하고 살아온 것이다. 요즘은 형편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큰절에는 꼭 있었다. 그러한 처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천대를 받으면서도 살 수는 있었다. 헌데 몸이 병들자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었다. 버려진 신세가 된 것이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때 암자에 살고 있던 젊은 비구니스님이 처사를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그가 바로 그의 누님이다. <계속>



그림·문병성

“오늘은 생태-경제-사회윤리” “일상의 삶으로 가르침 실천”

배경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과정의 철학을 중시하지 않고, 속도와 물량을 능사로 삼아왔던 데에도 영향을 있었던 것입니다.

- 또한 불교의 전통은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불교가 현 인류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도 바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우공양도 대안 중 하나일 테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대형 불사는 불교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오계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 불교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대안입니다. 가히 혁명적이기도. 경전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도 '인간'이란 독립된 개념이 없습니다. 태인(胎生) 중의 하나요. 육도(六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중에 한 부류일 뿐이며, 지수화풍(地水火風) 4재로 자연에 회귀할 일시적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대승 불교에서는 동생류를 아깝지 않게

- 그리고 보니 요즘은 사이버 즉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더해졌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물랄 위주의 자본주의가 그리고 냉전시대의 사회주의가, 결국 총체적으로 비판받는 오늘을 예견했던들 20세기 동안 그렇게 왕성하게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화라는 것도 부분적인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리라 생각됩니다. 인류는 가치론적 지향보다 욕망의 흐름을 관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정신사에 있어 석가세존과 공자 그리고 예수의 자각을 넘어서는 진보는 없었습니다. 특히 정보화의 문제점은 '자각의 주체가 간섭할 수 없는 기술과 역명의 진화'로 내달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폐해가 눈앞에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순간입니다. 불교와 정보화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젊은이들은 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 큰스님께서 누님이 강조하셨듯이 대안 문화로서의 불교 문화는 주류 문화의 병폐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Advertisement for '조립식 팔각등' (Modular Octagonal Lantern).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lantern and a list of features: '제작이 간편한 등' (Easy to make),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Various patterns and aesthetics), '아외장업용' (Outdoor use), '운반 및 보관 용이' (Easy to transport and store), and '경제적인 가격' (Economical price). It also includes a diagram of the lantern's assembl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현우기획'.

Advertisement for '불제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Bulje Cable). It lists features like '사용 용도' (Usage: outdoor lighting), '규격' (Specifications: 30cm, 50cm, 1M, 2M, 3M, 5M),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Safety, workability, durability), and '전등 배선' (Lighting wiring). It includes a diagram of the cab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대원기업'.